

견학 및 시상식 안내

I 캠퍼스 투어

- 일시: 1월 22일(월) 11시 20분 ~ 12시
- 코스: 위당관 → 연희관 → 본관 → 중앙도서관
→ 이한열 동산 → 박물관

"견학 인원이 제한되므로 미리 신청하세요!"

II 운동주기념관 및 언더우드기념관 견학

- 일시: 1월 24일(수) 11시 ~ 12시
- 1코스: 청송대 → 운동주기념관 → 언더우드기념관
- 2코스: 운동주기념관 → 언더우드기념관 → 청송대
- 3코스: 언더우드기념관 → 청송대 → 운동주기념관

"특별 선물 '운동주 시집'을 꼭 받아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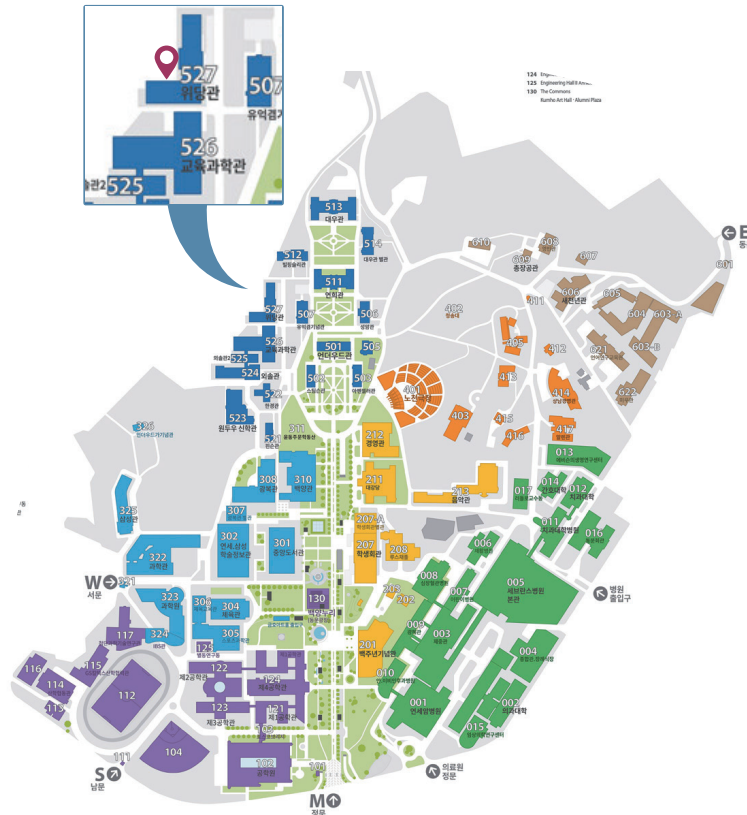
III 수료 및 에세이 시상식

- 일시: 1월 26일(금) 11시 ~ 12시
- 당일 참가자에게 수료증 수여
- 시상 내역(에세이 제출자 중 우수자 5명 선발)
 - 서대문구청장상 1명 (상장 및 상금 50만원)
 - 문과대학장상 1명 (상장 및 상금 50만원)
 - 장려상 3명 (상장 및 상금 10만원)
- 공모 내역
 - 주제: 운동주 시인
 - A4 3매 분량(바탕체 10pt, 줄간격 160%)의 에세이
 - 1월 23일 18시까지 humanart@yonsei.ac.kr로 제출

▶ 찾아오시는 길

"차량 이용객에게는 주차권을 드립니다."

📍 연세대학교 위당관 B09



"모든 참가자에게 예쁜 기념품을 드립니다."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인문예술진흥사업단

T. 02-2123-7920 humanart@yonsei.ac.kr

청소년 및 시민을 위한 제3회 연세 인문학 캠프

2024. 1. 22(월) 1. 24(수) 1.26(금) 09시~12시

연세대학교 위당관 B09

초·중·고등학생 및 시민(대학생 포함)

주 최

서대문구청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인문예술진흥사업단

주 관

국어국문학과 BK21 FOUR 교육연구단,
심리학과 예비 교육연구단, 독·불·노 예비 교육연구단

PROGRAM

1일차 / 1월 22일 (월) ★ 사회 이소윤 박사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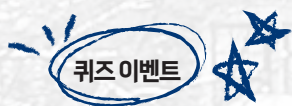
- 09:00~09:20 **입교식, 환영사, 축사**
문과대학장 · 서대문구청장
- 09:20~10:10 **우리는 왜 문학을 읽는가?**
조강석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 10:20~11:10 **상위 1%의 전문가를 만드는 심리법칙**
손영우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
- 11:20~12:00 **캠퍼스 탐방** (본관 → 중앙도서관 → 박물관)
홍보대사 및 인솔자

2일차 / 1월 24일 (수) ★ 사회 남혜현 교수

- 09:00~09:50 **변화와 위기의 사회를 위한 다양성과 세계시민성: 세계 70개국을 다닌 교육학자의 시선**
김진희 박사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원
- 10:00~10:50 **우리는 어떤 미디어 환경 속에서 살고, 일하고, 사랑하고, 노는가?**
김용찬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 11:00~12:00 **캠퍼스 탐방** (운동주기념관 → 언더우드관 → 청송대)
홍보대사 및 인솔자

3일차 / 1월 26일 (금) ★ 사회 송현주 교수

- 09:00~09:50 **일제 하 연희전문, 세브란스 의학전문과 그 독립운동**
이기훈 연세대 사학과 교수
- 10:00~10:50 **매일 새로 태어나기**
정현중 시인 (전 연세대 국문과 교수)
- 11:00~12:00 **수료 및 시상식 (상장 및 상금)**
서대문구청장 · 문과대학장



시상식 후에 인문학 캠프에 대한 퀴즈 후 정답자에게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PROFILE



조강석 교수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문학평론가. 동아일보 신춘문예 문학평론 부문 당선. 현대문학상 수상. 저서로 『한국시의 이미지-사유와 정동의 시학』, 『틀린의 기동』, 『한국문학과 보편주의』, 『이미지 모티폴로지』, 『경험주의자의 시계』, 『아포리아의 별자리들』 등이 있다.



손영우 교수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박사, (前)미국 코네티컷대학교 교수. 2014년 한국 산업 및 조직심리학회 학회장을 역임하였다. 일의 의미와 소명, 재능과 전문성의 개발 등 일을 통한 삶의 의미 추구하고 성장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전문가, 그들의 법칙』 이 있다.



김진희 박사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원. 서울대학교 박사 수료 및 영국 쉐리대학교 박사, 호주 시드니과기대 교수, 한양대 다문화교육학과 겸임교수. 제 70회 유엔 총회 한국정부 대표 교육자문관 역임, 한국다문화교육학회 상임이사, 교육부 및 외교부 자문위원. 주요 저서로 『다문화교육과 세계시민교육 이론과 쟁점』 등 60권이 있다.



김용찬 교수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박사, (前)아이오와대학, 앨라배마대학의 교수. 미디어 사회이론 전공자로서 미디어, 도시, 위험 사회 분야를 연구한다. 저서로는 『포스트 매스미디어: 연관성의 위기에서 초위기로』, 『위험, 사회, 미디어』, 『The Communication Ecology in the 21st Century Urban Communities』, 『미디어와 공동체』, 『논문, 쓰다』 등이 있다.



이기훈 교수

연세대학교 사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 (前)목포대학교 사학과 교수, 계간 역사비평 주간. 한국 근대의 주제 형성과정을 문화사적 측면에서 추적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무한경쟁의 수레바퀴』, 『청년아, 우리 청년아 : 근대, 청년을 호명하다』 등이 있다.



정현중 시인 (전 연세대 국문과 교수)

1939년 서울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다. 1965년 '현대문학' 을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시집 『사물의 꿈』, 『사랑할 시간이 많지 않다』, 『한 꽃송이』, 시선집 『고통의 축제』, 『이슬』, 시론과 산문을 모은 『날자, 우울한 영혼이여』 등과 다수의 번역서가 있다. 한국문학작가상, 연암문학상, 이산문학상, 현대문학상, 대산문학상, 파블로 네루다 메달 등을 수상했다.

LECTURE

우리는 왜 문학을 읽는가?

수많은 볼거리와 오락거리가 넘쳐나는 시대에 문학이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좋은 문학이란 무엇인가? 문학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가? 문학 아는 즐거움은 무엇이고 문학 아는 삶은 어떻게 다를 수 있는가? 이 강연에서는 이런 주제들에 대한 탐색을 통해 문학에 대해 생각해 볼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상위 1%의 전문가를 만드는 심리법칙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인 전문가가 되고 싶어한다. 그렇지만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거쳐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부러워한다. 공부를 하건 운동을 배우건 어떤 일을 하든지 탁월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훈련이 있다. 본 강연에서는 세계적인 전문가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심리법칙을 소개한다.

변화와 위기의 사회를 위한 다양성과 세계시민성: 세계 70개국을 다닌 교육학자의 시선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한가? 어떤 교육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가? 1950년 초, 에티오피아보다 가난했던 한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도약했다. 교육 수준도 높아졌지만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까? 저출산 고령화 사회 속에서 화두로 떠오른 다양성은 기존 사회의 프레임을 깨고, 새롭게 창조하고 재구성해야 하는 미래의 방향을 보여준다. 교육학자의 경험과 성찰을 통해서 더 나은 '나',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정을 탐색한다.

우리는 어떤 미디어 환경 속에서 살고, 일하고, 사랑하고, 노는가?

우리는 미디어 안에서 산다. 미디어를 '통해서', '갖고', '도움으로', '더불어' 사는 정도가 아니다. 우리는 '미디어 안에서' 살고, 일하고, 사랑하고, 논다. 고래가 바다에 사는 것처럼, 딱정벌레가 숲 속에 사는 것처럼, 미디어 속에서 산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21세기에 우리는 어떤 미디어 환경 속에서 살게 되었고, 그 환경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본다.

일제 하 연희전문, 세브란스 의학전문과 그 독립운동

일제하의 억압적인 교육정책, 특히 고등교육 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그 속에서도 연세대학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와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가 어떻게 설립, 운영되었는지 민족의 지성을 양성하는 대학으로서 소명을 다하려는 노력을 알아본다. 연희전문과 세브란스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전개된 독립운동의 내용을 알아본다.

매일 새로 태어나기

자기가 세상에 태어난 뒤 하루 하루를 어떻게 사는가는 우리를 각자에게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어쩌면 그것밖에 중요한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학을 비롯한 인문적 노력은 우리를 각자가 자기의 인생이 아름답다고 자축할 수 있도록 이끄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